

'복지도시' 전주, 연말 상복 터졌다

시, 기관표창·개인표창 등 수상 잇따라

전주시가 올 한해 사회복지분야에서 다양한 수상실적을 거두며 민선6기 시정방정인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힘쓴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올 한해 사람을 향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연말 사회복지 업무 관련 각 분야별 정부 부처 등의 결산대회에서 기관표창과 개인표창 등 다양한 상을 연달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올 한해 사례관리 등을 통한 재정절감 및 의료급여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의료급여 사업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 지난 달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현신적으로 추진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시니어클럽협회로부터 우수지자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자를 적

극 발굴하고,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보호를 추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민·관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2016년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박주혁 전주시 평화동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은 맞춤형 복지팀 설치 및 동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동복지 허브화와 동네복지 정착,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민선6기 첫 결재사업이자 '약자 우선,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이 취약계층 결식아동·청소년의 아침점심을 해결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창립회의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국장급 간부와 전 주 청년,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주시의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창립회의가 26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사업 추진 시 모범이 된다는 평가 속에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수상실적은 지난 1월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재까지 '소외되는 사람 없는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는 과정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이 기쁘다"면서 "수상을 계기로 전주시 조직구성원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전주시민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전주시 복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창립 단합과시

기업 상생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전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가 창립됐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역 9개 중소기업협의회 소속 296개 업체가 참여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이날 전주 리원호텔에서 전주시역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박성래 광레이저 대표를 회장으로, 김기열 (쥬티앤시 대표와 유도형 신유엘리베이터(주) 대표를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총 18명의 임원진을 임명하고, 협의회 정관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강성대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의 중소기업 비전에 대한 특강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유공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등 노사화합의 시간이 진행됐

다. 신임 박성래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장기적인 경제체제로 어려운 현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간 상생 및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전주지역 중소기업들이 협업자로서, 또 경쟁자로서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노력을 통해 전주시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전주, 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해주는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며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가 앞으로 전주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단체이자, '지역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의 협력 창구 등 행정과 기업의 소통채널

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가 중소기업간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서 상생의 힘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며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우리 전주시의회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전주시역 중소기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정보제공 및 상호 교류, 장학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전주시이전및투자기업융합협의회의와 (사)전주공단협회, 전주시점단 벤처단지협의회,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임주자협의회,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 전주지식산업센터관리단협의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창업보육센터임주기업협의회, 전북테크노파크임주자협의회 등 9개 협의회 296개 회원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차량 유리창 깨 금품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6일 31차례에 걸쳐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3시 경 전주 시내에 길가에 주차된 SUV의 앞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에 있던 금품 20만원 가량을 훔치는 등 동일 수법으로 9개월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른 혐의로 기소됐다.

1,9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박씨는 유혹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용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많지만,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면제했다"며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북도교육청, 내년 학생안전사고 3% 감축

전북도교육청이 내년에 학생안전사고를 3% 감축하고 안전수업교실을 확대해나간다는 내용의 2017년 학생안전사고 예방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전북교육청은 우선 교육부 안전체험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된 특별교부금 15억원으로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링해 소규모 안전체험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2억1천만 원으로는 전북119안전체험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초등 3~6학년이 참여해 학교 주변 위험, 안전 환경요인을 표시하는 지도인 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안전교육을 51차시 편성해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는 생

활, 교통, 재난, 응급처치 등 다양한 내용의 안전교육도 지속 추진한다.

초1~2학년의 안전체험 활동을 위한 '안전한 생활' 교과서를 보급하고 체육, 과학실습 수업 시작 전에 5분 안전교육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북119안전체험관, 전북해양수련원 등에서 진행되는 생애주기별 학생 안전체험활동은 올해도 지속된다.

또 초등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생존)수영 등 실기교육이 확대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 안전교육 직무연수, 수상안전매뉴얼 제작, 해양안전교실도 추진된다. 특성 학교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실습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정해은 기자

빈집 들어가 태블릿 PC 훔친 20대 형사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우편함에 보관된 대문 열쇠로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전기기와 현금을 훔친 A씨(26,여)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 강당3길소재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30만원 가량의 태블릿 PC와 현금 1만 7,000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